

# 대구지부

## - 여름이 겨울보다 싫은 일곱번째 이유 -

김 태 원/ 우리 협회 대구지부 기사

첫째, 여름은 겨울보다 무척 덥다.

둘째, 겨울엔 추우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랫목에 들어가면 되지만 여름엔 더위도 몸 숨길 곳이 없다.

셋째, 여름엔 속옷이며 운동화며 자주 빨아야 하니까 나같이 게으른 사람에게는 정말 귀찮은 계절이다(예전 자취 시절에).

넷째, 겨울엔 애인이 춥다고 품속으로 파고들어 오지만 여름엔 애인과 팔짱을 끼고 가더라도 땀이 줄줄 흘러 내리는 게 보통 곤욕이 아니다.

다섯째, 나같이 몸매가 날씬한(?) 사람들에게는 옷으로 몸 전체를 가릴 수 있는 다른 계절보다 여름의 패션이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다.

여섯째, '88년 4월 4일 군입대하고 맞은 첫 번째 여름에 정말 죽을 고생 많이 했다.

그리고 일곱번째는 지난해 여름 .....

차안의 에어컨 바람만으로는 도저히 식혀지지 않는 따가운 여름 햇살을 머리에 이고 동해의 해안 도로를 타고 찾아간 곳은 경북 영덕의 ○○고등학교 실습실 신축 현장이었다. 보기에 도 큼지막한 덩치의 현장소장은 목에 수건을 두르고 비지땀을 뺄뺄 흘리며 재해예방 기술지도차 방문한 최재천 전문위원님과 나를 그리 반갑지만은 않은 표정으로 맞았다.

현장사무실로 들어가 우선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 목적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고 안전관계 서류들과 표준안전관리비에 대한 사용내역을 확인해 보니 어느 중·소규모의 현장과 별다를 게 없이 안전활동에 필요한 관계 서류들의 양식조차 제대로 갖추어 놓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에서 내역 작성, 사용기준, 그리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안전활동과 관계일지 작성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우리는 현장을 둘러보기 위하여 사무실 밖으로 나왔다.

‘○○쫘 ○○일로 하여 귀 현장을 방문하겠노라’고 사전에 연락을 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모같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일을 하는 근로자는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었고 작업장안은 정리정돈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보기만 해도 정신이 산만할 정도로 어수선했었다. 한창 공사중이었던 실습동 건물은 1층 Slab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해 거푸집을 대고 그 밑에 동바리를 받쳐둔 상태였다. 그러나 이 건물은 층고가 약 5m 가량 되고 바닥면적도 꽤 넓었으며 기둥간 간격은 거의 7~8m 이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푸집 동바리에는 형식적으로 수평가새를 몇 군데 드문드문 걸쳐 놓은 게 고작이었다. 그런 모습을 본 최재천 전문위원께서 그냥 지나치실 리 없었다. “층고가 2m를 넘으면 매 2m마다 2개 방향으로 동바리를 수평가새로 보강하고, 여기 캔틸레버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하부는 바닥이 무르고 특히 비가 온 후에는 지반이 침

하되기 쉬우므로 동바리 밑부분을 깔판이나 갈목, 밀받침 철물로 보강하고 서로 연결을 단단히 잘해두라”고 열심히 차근차근 설명을 했지만 현장 소장은 무성의하게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건물이 무너져 내린 것은 꼭 1주일 후였다. 이 사고로 1명이 뇌진탕을 입는 중상과 3명의 경상, 그리고 8천 5백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그 현장의 책임자는 콘크리트 타설 요령조차 제대로 몰랐을까? 이건 나중에 알게 된 일이었지만 거꾸집동바리도 부실한 데다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도 골고루 분산해서 타설한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부터 집중적으로 타설해 나오다 보니 급기야는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 것이었다.

어쩌면 오히려 잘된 일인지도 모른다. 설사 당시 그 건물이 요행히 무너지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들이 지은 부실하기 짝이 없는 실습실이라는 건물 속에서 공부할 하는 어린 학생들이 언제까지나 안전하리라는 보장은 누구도 할 수 없을 것이다. 학교시절 ‘건축이란 인간의 생활을 담는 그릇’이라고 배웠다. 바로 우리 인간이, 인간과 인간의 생활을 담아야 할 그 그릇들을 하나 둘 부수고 있는 꼴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었다.

건설인의 한사람으로서 불과 한달 남짓 전의 삼풍사고에 대한 참담한 심정이 채 아물기도 전에 바로 내가 이런 사고를 직접 접하고 보니 눈

아만 보이는 안전불감증이란 벽에 부딪혀 앞으로의 일이 걱정이다 못해 벌컥 두려움까지 생기는 것이었다.

그 일이 있는 이후로 물론 더운 날씨 탓도 있었겠지만 얼마간 현장지도가 무척 힘겨웠던 것 같다. 나름대로는 준비도 많이 하고 현장에 가서 지도도 열심히 한다곤 하지만 웬지 나 혼자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허공에다 떠들어 대는 것 같았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있는 것만 같아 지도를 마치고 돌아서 나올 때는 뒤통수가 여간 무거운 게 아니었다. 이런 두려움과 심리적인 압박을 극복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고 바로 그러한 때에 전 대구지부장이셨던 우광국 부회장과 본부 최재천 위원님의 조언과 도움이 큰 힘이 되었던 것 같다. 위원님께서는 늘 인내와 사명감에 대하여 일깨워 주셨고 또 몸소 보여주셨다. 당신을 연세가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며 강원도, 경



붕괴된 영덕 ○○고등학교 실습실 신축현장

## 우리지부최고

상도 전국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현장지도를 위하여 다니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사명감 때문이 아닐까 싶다.

지난 여름이 힘들었던 것은 비단 나뭇만이 아니라 지부직원 모두가 그러했을 것이다. 사무실 안에 있는 석대의 선풍기로는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땀을 다 식히지 못해, 누구에 의해 개발된 피서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속에 들어가 땀이며, 등이며, 배며, 뜨거워진 몸을 차가운 철판에다 대고 한참을 식히곤 했고, 여름날 지친 개의 혀바닥처럼 길게 늘어선 달 그림자를 밟으며 서로의 지친 등을 두드리고 위로하며 술하게도 늦은 밤의 퇴근길을 걸었다. 그래도 어느 누구하나 불평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것은 바로 협회에 대한 우리 직원들의 깊은 신뢰와 동료 직원들 서로간의 애정으로 말미암아 누구 말마따나 지금 우리의 시작은 비록 미약하나 우리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었으리라. 이게 바로 우리 대구지부이다.

출장 다녀온 지출결의서에 언제나 버스비 ○백 ○십원이 적혀지는 알뜰한 한상우 기사, 한 가지라도 더 많은 것을 현장에 알리고 전달해



대구지부 가족들(좌로부터 김병춘 기사, 한상우 기사, 지부장 유홍렬 전문위원, 윤희준 기사, 권상미 사원, 임철규 사원, 필자)

주기 위해 갖가지 좋은 양식이며 책자, 안전 포스터들을 한 보따리 제일 큰 가방에 메고 다니는 우리 지부 얼굴마담 김병춘 기사, 콘크리트 벽에 못을 박는다거나, 또는 실수로 안에서 잠겨진 여자 화장실을 넘어 들어가 문을 따주는 등 굵직굵직하고 위험한 일을 도맡아 하는 우리 사무실의 해결사 윤희준 기사, 현장에 나가는 기사들을 위해 전투근무지원을 아끼지 않는 임철규 사원, 권상미 사원, 모두가 우리 지부의 자랑이다. 또 합리적이며 젊고 의욕에 넘치는 유홍렬 전문위원님을 새 지부장으로 모시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기쁜 일이며, 80평 남짓 중앙집중 냉·난방시설에다 아침, 저녁으로 밀결레와 빗자루를 들고 사무실이며 화장실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새 사무실로 옮겨, 이젠 더 바랄 것 없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애쓰시고 배려해 주신 이상열 회장님과 지부장님, 그리고 많은 분들께 우리 대구지부 직원 모두는 깊이 감사를 드리고 있다.

우리 대구지부엔 올해가 가기 전에 한가지 조그마한 목표가 있다. 기사들 전원이 안전기사 자격증을 하나씩 더 손에 쥐는 것이다. 동료이자 좋은 경쟁 상대들이 바로 곁에 있고 무재해 건설현장들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우리들에게 그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며, 아니 어찌면 그것이 목표라기보다는 우리들의 위대한 꿈을 이루고 한국건설안전기술 협회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재해예방전문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기틀을 다지는 일이 아닐까 싶다.

그래서 다가올 여름이 이젠 더 이상 싫거나 두렵지 않게 되었고 올 연말 망년회 때는 모두 둘러앉아 지난 여름을 회상하며 모두 함박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이다.